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분위기 달아오른다

D-127

시청앞 FINA 깃발 제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128일을 앞두고 국제수영연맹(FINA) 깃발이 광주시청사 앞에 제양되면서 사실상 대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6일 시청사 앞 광장에서 이용섭 시장과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INA기 제양식과 마스크트 조형물 제작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넬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 이 시장과 함께 FINA기를 제양했다.



6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회를 기원하기 위한 '수영대회 마스크트 제작식' 행사가 열렸다. 이용섭 시장과 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넬 사무총장은 "FINA가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 중에 있는데 광주는 아주 특별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회 준비를 지원해주시는 이용섭 시장과 의회, 한국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은 광주시민과 학생,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원회는 이날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선대, 송원대, 광주여대, 송원초등학교 등과 문화예술 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학생들은 대회 개폐회식과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해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게 된다.

대학생들은 개폐회식과 문화행사에서 무용과 분장, 의상제작, 피켓요원 등으로 참여한다.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은 세계에

서 공수된 물을 함께 모으는 개회식의 '물합수식 퍼포먼스'에 등장한다.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대회기간 동안 각종 전시와 미디어아트, 음악, 무용 공연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수영대회 개폐회식 행사의 총 참여 인원은 900여 명으로 예상되며, '물·빛·남도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대 한미연합훈련 '역사 속으로'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이어 UFG 페지키로

5월말 한국 단독 '울지태극연습' 첫 시행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울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울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울지연습'을 때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0일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2018년 계획된 정부 울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울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형태의 울지태극연습은 매년 8월 UFG 연습과 함께 실시한 울지연습과 통합 5월에 실시하는 한국군 단독 지휘

소연습(CPX)을 통합한 것이다. 연습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격퇴하는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배양 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대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실시된다.

울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정와대 기습사건인 '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이었다.

태극연습은 합참 주도하에 전구(戰區)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전력 및 부대구조 발전 소요를 도출하고자 연례적으로 실시한 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이다. UFG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울지연습을 1976년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일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UFG 연습을 포함해 3대 대규모 연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올해 안

에 폐지되는 훈련이다. 폐지되는 훈련은 규모를 축소한 다른 이름의 훈련 등으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임정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할 듯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쉬게 돼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기업계에서 휴일 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온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임동욱 기자 tuim@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

美 38노스 등 보도... 폐기 약속 이행인가 대미 압박용인가

최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사이트들이 5일(현지시간) 잇따라 전했다.

이는 전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것이 폐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메시지 발신을 위한 행보인지는 판단하기 어려 보인다.

미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이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발사장을 재건(rebuild)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된 무렵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레일을 이용해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 위로 올리는 이동 구조물과 엔진시험대를 해체하

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최근 포착된 위성사진에서는 레일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는 중이라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를 통해 "상업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움직임은 수직 엔진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닫혀 있던 연결타워의 덮개도 열려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고 CSIS는 지적했다.

만약 회담 이전에 미사일 발사장을 손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면 북한이 회담 성공을 염두에 두고 발사장 해체 약속 이행을 위해 작업에 착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회담 결렬 직후 개시된 것이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거부한 미국에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창리 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되는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곳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카드로 회담 결렬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진행 포착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앞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선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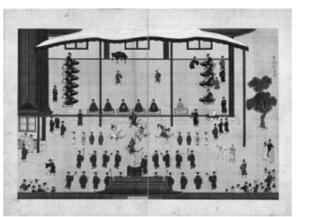
18세기 초 대표 궁중회화로 꼽혀온 '기사계첩(耆年契帖·사진)'이 국보로 승격됐다.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숙종이 59세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契)를 하고 궁중화원에 의뢰해 만든 서화첩이다. 오늘날 기념사진과 유사하다.

당시 숙종은 59세였기 때문에 기로소에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태조위 성세가 70세가 되기 전 60세로 들어간 전례에 따라 입소했다. 행사는 1719년 시행됐으나 참석자들의 초상화 그리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1720년 최종 완성됐다.

기사계첩 국보는 보물 제929호에서 국보 제325호로 격상됐다.

계첩은 기로신(耆老臣) 중 한 명인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과 경희



궁 경현당 연회 때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년)의 발문이 수록됐다. 또한 기로신들의 명단, 이들의 반신 초상화 등으로 구성됐다.

계첩에 수록된 그림은 조선 후기 '궁중행사도' 중 완성도가 가장 높다.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사실성이 돋보이는 얼굴 표현 등이 특징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투자 자모집
엔피엘/급매물등 모든부동산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사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 ↓
식후 2개월식~ 하루 2개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한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안바이오 배세생활건강 · 검색
010-3598-708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클라우드에셋 강의실
-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